

간토(關東)지방의 부인부, 미즈사와 기요

간토(關東)지방의 어느 소도시에 ‘미즈사와 기요’라는 미망인이 작은 요리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24세에 남편을 잃고 남은 외동딸과 함께 31년이라는 긴 세월을 줄곧 일해 왔다. 음식점은 요리 외에 그 도시의 경찰서나 소년형무소에 차입하는 도시락도 만들고 있었으므로 가게는 꽤 안정되어 있었지만 이익에 비해 생활은 어려웠다.

그도 그럴 까닭이 있었다. 그녀는 T 교단의 신자로서 일하며 얻은 많은 이익을 그대로 교단 본부에 가져가는 것을 유일한 삶의 보람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1, 2년의 일이 아니다. 무려 27년이나 계속하고 있었다. 여자 혼자 힘으로 이 정도까지 일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웠다. 그 종교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세무서의 철저한 조사로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되었다. 그만한 수익은 확실히 있었지만 모든 것은 교단 본부에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지만 부족했다. 세무서의 심한 독촉장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같은 도시에 사는 친한 사람에게 돈을 부탁하려고 상담하러 갔다.

그는 창가학회의 중견간부였다. 품격이 좋은 그 간부는 온화하게 종교의 옳고 그름을 설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인생을 얼마나 좌우하는가 속속들이 이야기하였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로는 또 막혀 버려요. 이왕 신심한다면 모든 면에서 반드시 올바르게 단언할 수 있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佛法)에 귀의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도저히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없고, 그게 걱정이예요.”

미즈사와 기요는 화가 났다. 금융을 부탁하러 갔다가 자신의 신앙을 더럽힌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으러 온게 아닙니다. 전 지금 돈이 곤란하여 상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심술궂은 말을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아무리 돈을 마련해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결과가 되기 쉬워요. 그걸 주의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에 미즈사와 기요는

“당신은 제 종교를 모르십니다. 전 지금까지 27년이나 해 왔습니다. 덕분에 건강하게 이 만큼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약간의 돈이 곤란하다고 해서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쏘아 붙였다.

그리고 억척스러운 미즈사와 기요는 자리를 일어섰다. 학회간부는 그녀의 뒷모습에 호소하듯 중얼거렸다. “27년이라, 아깝다. 아까워. 만약 대성인의 불법을 27년이나 당신처럼 착실히 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경애로 되어 있을까...”

그로부터 그녀는 고투를 거듭했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자신의 신앙을 불태웠다. “나는 반드시 일어서 보이겠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어떤 건지 모르나 지금까지의 신앙을 그만두면 27년이 헛되지 않은가. 오늘부터 지금까지 이상으로 무리해서라도 받들 것이다.”

누구하나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것이 평소와는 달라 불가사의했다. 그뿐 아니다. 수년전 보증인으로 도장을 찍어 주었던 친구의 빚마저 오히려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얹힌 데 덮친 격이다. 3개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몇 통이나 쌓인 세무서의 독촉장과 빚 갚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손에 넣고 드디어 차입이 들어올 것을 각오해야만 했다.

사람들이 조용히 자고 있는 깊은 밤에 그녀는 혼자 방에 앉아 한숨을 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온갖 계책을 다 써보았다. 한심했다. 울고 싶어도 이제 울 수도 없다. 집에 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다.

실의의 밑바닥에서 생각지도 않던 일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저 학회간부가 최후에 혼잣말처럼 한 말이다. 만약 대성인의 불법을 27년이나 착실히 하고 있었다라면 그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경애가 되었을까...

그녀는 웬지 모르게 생각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아니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제 타개할 힘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한대로 대성인의 불법을 27년 했다면 몹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쩌면 종교에도 옳고 그름이 있을지도 모른다. 깊은 교의(敎義)는 조금도 모르지만 단지 신심만큼은 자신이 있었을 뿐이다. ... 믿는 것이 올바른지 틀린지는 전혀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줄곧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지금까지의 자신을 단념하고 새로운 것에 매달리는 결심만이 새벽과 함께 어느 사인이 생겨나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거리는 한산하다. 그녀는 이제 수치도 체면도 걸치레도 없었다. 아침부터 그 간부의 집을 찾았다.

그녀에게 오직 하나 남은 자신 있게 신심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으로 향하게 한 것이다. 한참 자다가 느닷없는 방문에 간부는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보기도 딱할 정도로 초췌해진 그녀를 친절하게 대했다.

입신결의를 듣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되풀이하며 말했다.

그날 미즈사와 기요는 가까이에 출가해 있던 외동딸을 절복하여 그 사위와 함께 세 사람이 입신했다.

어본존을 안치하자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떨어진 것 같은 상쾌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사위의 부모는 맹렬한 반대를 시작했다. 신심하는 일에 자신이 있는 미즈사와 기요는 그날부터 맹렬히 창제에 면려했다.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돈뿐이었다. 장사에도 아침 일찍부터 온 힘을 쏟았다. 밤에는 학회간부가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술선해서 실천했다. 먼저 혈색이 금방 좋아졌다. 그와 동시에 나날의 매상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고객이 잇달아 늘기도 했다. 이젠 어디에 기부할 필요도 없다. 다달이 들어가는 이익은 고스란히 그녀의 손에 남았다. 정신없이 반년이 지나자 세금과 빚을 대강 지불할 수가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염원인 돈 문제는 꿈같이 해결했으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외동딸의 소중한 남편이 홀연히 행방을 감추었던 것이다. 아주 착실한 청년으로 생각되었던 그는 부모에게 신심을 강하게 반대 당하자 어느 사이 경륜, 경마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몇 십만 엔(한화 몇 백만원)을 쓰고 집에 갈 수 없게 되자 가출했던 것이다. 딸은 임신하고 있다. 미즈사와 기요는 딸을 떠맡아야만 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함께해 온 모녀는 지금은 어본존에게 매달려 기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위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확신할 수 있었으나 몇 개월이 그대로 지나갔다.

이윽고 산달이 되었다. 딸은 겨우 15분 진통으로 사내아이를 순산했다. 갓난아기는 3.7kg 정도로 커다란 아기였다. 그런데 조산부가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을 때 어머니와 딸은 깜짝 놀라며 숨을 죽였다. 갓난아이의 왼쪽 다리가 이상한 것이다. 작은 다리는 길게 굽어져 발목에서 앞이 안쪽으로 굽어져 있지 않은가.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딸은 그 시선을 피하고 비통한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미즈사와 기요는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당황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그녀 일가가 지금까지 저질러 온 긴 세월의 방법(謗法)에 의한 죄업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굳게 그것을 믿었다.

‘아무리 올바른 신앙에 면려했다고는 하나 단기간에 과거로부터의 인과(因果)가 간단히 전환될 리가 없다. 금세의 오랜 그릇된 신심에 의한 생명의 타함이 엄하게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지금은 청정한 거울로 그것을 엄하게 싫을 정도로 보게 된 것이다.’

작디작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창제하던 그녀는 ‘그렇다, 어떻게든 첫 손자의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고쳐 보자’고 즉시 받침대부목으로 치료하고자 나무상자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상자를 부수어 두 장의 나무 조각을 발의 치수에 맞추자 탈지면으로 발을 싸고 그 위에 나무판을 맞추어 양쪽에 대면서 붕대로 단단히 감았다.

그날부터 미즈사와 기요는 틈만 있으면 어본존 앞에 단좌하여 창제했다. 사랑하는 첫 손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축소시켜도 좋으니 아무쪼록 다리를 똑바로 해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원했다. 사람들에게 발의 붕대를 보일 수는 없었다.

배내옷의 긴 옷자락으로 발을 싸 몸이 에이는 듯한 심정으로 신경을 썼다.

지금까지의 죄업 때문이라고 믿었던 그녀는 오로지 허리띠도 풀지 않고 오로지 창제로 보냈다. 이리하여 일주일 이 지났다.

어머니와 딸은 기대와 불안에 떨면서 깊은 밤 주의 깊게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나무판을 빼고 탈지면을 제거하고 작은 발을 만지며 쓰다듬었다. 안쪽으로 굽어 있던 발목은 지금은 거의 똑바로 교정되어 아직 가늘기는 하나 기운차게 발을 차고 있었다.

“발이 ... 어머, ... 이것 봐, 이렇게.”

모녀는 인기척이 없는 방에서 영겁결에 말했다. 동시에 환성을 올리며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오른쪽 다리와 비교해서 가늘었던 왼쪽다리는 다시 2주일 후에 오른쪽 발과 같은 굵기로 되었다. 완전히 치유된 것이다. 그녀들은 불가사의하게도 생각되는 어본존의 위대함에 감동되어 치밀어 오르는 신심의 기쁨에 잠겼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다. 가출한 사위가 벌써 5개월 정도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갓난아기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자 사위의 일만이 염려되었지만 이것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을 깊게 했다.

어느 봄비가 내리는 밤 모녀는 늦게 저녁근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젠 인기척이 없는 불 끈 가게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창제를 멈추고 미즈사와 기요는 외쳤다.

“누구요?”

대답이 없다. 그러나 확실히 인기척이 있었다.

딸은 일어서서 미닫이문을 열었다. 자세히 보았더니 가게 앞에 방랑자가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점퍼 차림의 남편을 발견한 것이다.

“어머니!”

딸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소리치듯 외쳤다.

사위는 집으로 돌아오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귀소 본능대로 그는 지금까지 한밤중에 이 마을을 자주 찾아 왔다. 오늘밤도 먼저 그의 생가 앞을 지나고 그 다음에 아내의 친정을 지나며 몰래 안부를 탐색하러 온 것이다.

음식점 앞에 잠시 멈춰서니 창제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두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던 중에 어찌 된 셈인지 그는 빈혈이라도 습격당한 듯이 발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무의식중에 가게 문에 손을 댄 것이다.

완전히 몰락한 젊은 아버지는 생후 20여 일 된 그의 자식을 처음으로 안았다. 그리고 아이의 다리질환과 그것을 알았을 때의 모녀의 고충, 오로지 창제로 끝까지 이겨낸 경과를 듣고 그는 흐르는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눈물은 또 소생하는 맹서의 눈물이기도 했다.

입신 이래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미즈사와 기요의 신변에 일어난 일들은 작은 사건

인 것 같았지만 자신에게는 어떠한 사건보다도 중대하며 심각한 사건들이었고, 그것은 바로 변독위약(變毒爲藥)의 실증이었다.

<끝>

인간혁명 제8권 (38쪽~46쪽)